

제 안 문

미래로 나아가는 ‘대화의 마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옛것은 물러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미래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공간이 없습니다. 서로 불신하면서 창의 끝처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존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정 정도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운영해왔으나, 대부분 참여 주체 간 불신의 벽만 높아가며 파행 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최소한의 ‘협약’도 없이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성급함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자기 중심주의도 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공기(公器)가 되어야 할 언론 역시 불신의 대상입니다. 정신과 영혼의 치유자이자 방향타가 되어야 할 종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논쟁의 장이 되어야 할 학자들과 학문의 세계도 가볍기 한이 없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토론의 성과는 무시되고, 적대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뿜어내는 거짓정보와 설익은 주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갈등을 수렴해야 하는 정치는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 법원 등 사법체계도 믿음과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층과 세대, 지역 간 불평등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철 지난 유물로 취급했던 이념과 진영의 대결은 오히려 광장을 점거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발시대가 남긴 유산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장중심 이론과 방식에 사로잡혀, 획일화와 우상의 시대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찰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직도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 세계관, 생활문화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도 모두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는 우리 모두의 역사이며, 미래 역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인 혼란의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칭 ‘사회적 가치 대화 마당’(약칭 ‘대화 마당’)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가치 대화 마당’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성장과 이념, 우상, 독점, 물신의 시대에서 생명, 안전, 평화, 행복, 참여, 공존,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미래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마당입니다. 정치, 경제, 노동, 종교, 시민사회, 행정, 학계, 언론 등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각계의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가치 대화마당’을 통해 불신과 혼돈의 강을 건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와 규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 2. 20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을 준비하며
사회적 가치 대화마당 준비모임